

11월 농업계 정세 전망과 과제

|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 |

1. 한-미 FTA 4차 협상 종료...농업 부문 추가 양보 여부에 촉각

○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 중문단지 내 신라호텔에서 한-미 FTA 4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첫날부터 상품 무역분과의 회기가 파행을 거듭하고, 섬유 분야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종결되는 등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 때문에 양국은 내년 1월 한국에서 6차 협상을 벌이기로 결정하여 협상이 장기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농업 부문에서는 세이프가드(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경쟁품목의 붕괴가 우려될 때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와 TRQ(관세할당량, 특정 품목의 수입량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는 고율관세를 매기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관세 수준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 이번 4차 협상에서 농산물 양허안을 정부가 변경하여 양허제의 품목과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 일부를 미국측에 양보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측 반대로 농산물 양허안 관련 협상은 진전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미국측의 강력한 개방 요구에 정부가 한발씩 물러서는 데 있다. 미국 농무부가 4차 협상 직전 “한국은 빼 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정부의 양보 제안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서 결국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향후 5차 협상은 12월 중 미국 몬타나주에서, 6차 협상은 내년 1월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양국 협상단의 입장이지만, 현재의 협상 속도로 볼 때 내년 3월도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이번 4차 협상 기간동안 한농연은 총 750명의 원정투쟁단을 파견하여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10월 24일 천제연폭포 앞 집회에서 농민과 노동자 등 1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10월 25일에는 제주 농민 1명이 연행되는 등,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 진압 및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조기 퇴진, 신경분리 등 농협중앙회 총체적 개혁 필요

○ 10월 31일 공판 속개를 계기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 원을 수뢰한 혐의로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원의 검찰 구형을 받은 정대근 회장이, 최근 경영 복귀를 시도하며 자신에게

는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어, 350만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특히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핸드폰 회사 VK가 7월 부도처리 되면서 농협중앙회가 빌려준 돈 295억원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2004년 이후 타 은행이 VK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있을 당시, 농협중앙회는 반대로 대출 규모를 늘려 의혹을 사기도 했다.

○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1억원 이상 연봉 직원이 314명이며, 중앙회 직원 자녀·친인척 출신을 계약직(기술직, 유통직) 직원들을 편법 고용하여 평균 연봉을 4,600만원(농촌공사 평균 연봉)이나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었다.

○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협의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외면하는 정대근 회장의 즉각 퇴진을 위하여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10월 30일부터 농협중앙회 신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을 전개하였다. 특히 11월 25일부터 각 지역에서 농협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11월 29일에는 3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서울에서 갖기로 예정하고 있다.

○ 각종 비리혐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의 정대근 회장의 즉각 퇴진은 물론, 신경분리를 포함한 농협중앙회의 조직·사업·인력의 전면 개혁,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350만 농민들의 단결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3. 11월 22일 총궐기대회, 힘있게 준비하자!

○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100만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투쟁은 각 시도별 중심지에서 농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합세하여,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11월 22일 총궐기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한-미 FTA 농대위 대표자들은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준비사항과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총궐기대회 성사를 위한 분위기를 높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각 지역에서 수확기 영농활동 및 쌀값 결정 문제 등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10월 4차 협상 저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11월 22일 총궐기대회의 성사를 통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